

일몰 도래 농업분야 국세특례 11건 2년 연장

전남도 강력 건의 최종 반영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목돈마련저축 이자 비과세 등 농어업인 소득 증대 큰 도움

전남도가 정부에 건의한 올해말 일몰 도래한 농업분야 국세 특례 11건이 2년간 연장돼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올해말 일몰 도래할 농업분야 국세 특례 11건의 일몰 연장

이 전부 반영됐다.

이는 국세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조항들로, 지난 6월부터 전남도가 강력히 건의한 내용들이 최종 반영됐다. 연장 내용으로는 농업인에게 공급한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농업인 직접지원 특례 6건을 비롯 농업·출자금·출자금 비과세 등 농업 및 농업법인 간접지원 특례 5건이다.

우선 농어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과 3000만원 이하의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1000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 등에 대한 지속적인 비과세 조치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농가의 영농비용 부담 경감을 위

해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계속 적용되며, 농업인이 직접 수입한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또 농협 등 조합 법인의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와 작물재배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이밖에 농업인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감면하고,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축사폐업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지속된다.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현행법에서는 660㎡이하의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규모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오는 8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특례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는 농업인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세 감면과 농업용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등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조항도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에 참다슬기 방류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최근 섬진강 수산자원 중 보전을 위해 구례·곡성 섬진강 변에 어린 참다슬기 65만 마리를 방류했다. (사진)

국내 청정 1급수인 강이나 하천에서 서식하는 9종의 다슬기 중 섬진강 수계에서는 '다슬기'와 '참다슬기' 2종이 살고 있다. 최근 건강보조식품 재료로 각광 받은 다슬기는 구례·곡성 섬진강 지역의 특산품으로 내수면 어업인들의 주요 소득원 중 하나다. 이번 방류한 어린 다슬기는 지

난 5월 섬진강에서 확보한 토종 어미에서 생산한 인공종자를 약 70일간 7mm 이상으로 키운 것이다. 내년 3월 무렵에는 1.5cm 이상 크기로 자라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2017년 다슬기 종자 대량생산 기술 개발에 성공, 섬진강 하천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난해까지 190만 마리의 어린 다슬기를 생산해 방류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복지재단 C등급 이하 복지시설 컨설팅

올 신청 접수 3개 기관 지원

전남복지재단이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컨설팅에 나선다.

전남복지재단은 26일 "지난해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C등급 이하로 평가 받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3개 기관에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61개 가운데 평가결과 C등급 이하 시설은 총 7개소로, 이중 C등급 시설 2개소를 비롯 D등급 이하 시설 중 희망한 1개소를 선정했다.

시설별로 3회에 걸쳐 학계·현장 전문가와 재단 전문인력 3인으로 구성된 컨설팅

팀이 시설을 방문해 취약영역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컨설팅을 제공받은 기관의 90%가 이후 평가에서 등급이 상향된 결과를 얻어 지역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3년간 컨설팅을 제공받은 18개 기관 중 16개 기관이 1~2단계 상향돼 C등급 이하 기관이 A~B등급으로 오른 바 있다.

신현숙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은 복지부 평가에서 미흡한 시설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전남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라남도 예쁜정원 콘테스트 대상 순천 '화가의 정원'



개인·근린정원 36개소 응모

제1회 전라남도 예쁜정원 콘테스트 공모전에서 순천 별량 소재 화가의 정원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예쁜정원 함께 나뉘요'를 주제로 전남도가 주최하고 산림청이 후원한 이번 공모전에는 정원을 직접 만들고 가꾼 개인정원과 근린정원 등 총 36개소가 응모했다. <인터뷰 20면>

선정결과 대상 1개소(산림정장상)를 비롯 최우수상 2개소(도지사상) 우수상 5개소(도지사상) 특별상 3개소(도지사상) 등 11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심사지표는 ▲정원의 디자인 및 심미성 ▲타 정원과 차별성 ▲시공 품질 및 완성도 ▲역사성 및 관리상태 ▲지역민과의 공유 등 5개 항목으로, 대학교수와 정원평론가를 포함한 정원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류 및 현장심사 거쳤다.

대상을 받은 민영화씨의 '화가의 정원'은 정원 식물의 색감과 배치, 동산으

로 이어지는 확장성, 지역민과 공유 등이 우수하게 평가받았다. (사진) '개인 정원' 부문 최우수상은 귀촌주택정원의 우수사례로 박성자(담양 대덕면)씨의 '달빛정원'이 선정됐고, '근린정원' 부문 최우수상은 유림식 정원 유형에 훗카이도 풍의 초화류 배치가 돋보인 임해진(강진 강진읍진)씨의 '뽕스가든이' 각각 선정됐다. 개인정원 부문 우수상은 순천 '이씨고택 정원'이, 근린정원 부문 우수상(4개소)은 광양 '도심의 터 정원'과 나주 '3917 마중', 담양 '명지원', 화순 '뒤편'이 수상했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로 선정된 정원에 '전라남도 예쁜정원' 명판과 함께 가드닝 제품을 부여하고, 국민들과 공간 공유가 가능한 정원은 화장실과 주차장, 탐방로 등 편의시설을 확충한 후 민간정원으로 등록해 '블루투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테크노파크 '전남형 스마트화 역량강화' 사업 추진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가 전남지역 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기관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전남형 스마트화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형 스마트 역량강화 사업은 전문컨설팅 기관의 방법론 및 도구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예정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구축 중 기업의 현장의 애로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컨설팅(500만원)과 심화 컨설팅(1000만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전남도와 협업체 최근 기본 컨설팅 60개사, 심화 컨설팅 10개

사 등 70개사를 추가 선정한 바 있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기업진단을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수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상담 및 지도 등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까지 전남형 스마트화 역량강화 사업에 153개사가 지원해 기업부담금이 없는 지방비 지원사업 70개사를 뺀 후, 전남테크노파크는 기업부담금 50%를 부담하는 국비 지원사업이 사업비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중이다. 자세한 것은 전남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여름철 야생버섯 주의보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여름철 야생버섯의 무분별한 채집과 섭취로 중독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에는 총 1900여종의 버섯이 자생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섭취할 수 있는 버섯은 약 400여종으로 2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독버섯이거나 식용 가치가 없다.

해마다 야생 독버섯 섭취로 인한 사고가 7월부터 10월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산림청 조사결과에서도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독버섯 섭취로 인해 총 75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독사고는 주로 식용버섯과 비슷한 겉모습의 독버섯을 섭취하거나 버섯의 식용

여부에 대한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식용버섯과 비슷한 독버섯으로는 ▲개암버섯(식용)과 노란다발버섯(독) ▲달걀버섯(식용)과 광대버섯(독) ▲영지버섯(식용)과 붉은사슴버섯(독)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버섯 식용에 대한 잘못된 상식으로 ▲색이 화려한 것은 독버섯, 하얀 것은 식용버섯 ▲버섯이 세로로 찢어지면 식용버섯 ▲별레가 먹은 것은 식용버섯 등이 있다.

버섯의 겉모습만 보고 독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므로 섭취 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거나 '독버섯 바로알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

국립중자원 전남지원 내달까지 정부 보급종 신청 접수

국립중자원 전남지원(이하 전남지원)은 오는 8월 31일까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2020년산 보리·밀·호밀 정부보급종(이하 보급종) 신청을 접수한다.

28일 전남지원에 따르면 전남에서 신청 가능한 품종은 4품종 585.4t으로 새쌀보리 227.6t, 흰찰쌀보리 233.8t, 새금강밀 56t, 곡우호밀 68t 등이다. 보급종 신청 시 보리·밀은 소독과 미소독 종자를 선택해 신청 가능하고, 호밀은 미소독 종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호밀은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시행에 따라 현재 등록된 소

독 약제가 없는 상태로 전량 미소독품을 공급한다는 것이 전남지원의 설명이다.

새금강밀은 논 재배에 적합하고 가공 적성이 우수해 올해 전남지역에 처음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품종이다. 새금강밀은 전남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금강밀보다 추위에 잘 견디고 붉은곰팡이병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수확량도 10a당 562kg 정도로 금강밀(476kg/10a)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한 보급종 종자는 오는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해당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